

김태환 목포해수청장 취임, 본격 업무 시작

- 연안 해상교통 핵심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할 것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제31대 청장으로 김태환(金兌桓, 55) 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이 3월 4일 취임했다.

김 청장은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소득복지과, 항만보안개선TF 팀장으로 재임하면서 해운·항만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쌓았다. 이어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장을 거쳐 여수해수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신임 김태환 청장은 “전국 여객 운송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연안 해상교통 핵심기관의 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항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적한 많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영길 (061-280-1610)
		담당자	주무관	양지희 (061-280-1625)